광주·전남 금융기관 대출에 인색하다

총예대율 5대 경제권 평균 크게 밑돌아

활발한 자금중개 지역경제 발전 이끌어야

광주·전남지역 금융기관들이 여·수신 증가에도 불구, 대출에는 인색해 예대율 이 5대 경제권(부산·경남, 대구·경북, 인 천·경기, 대전·충남) 평균을 크게 밑도는

것으로 나타났다.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'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·전남지역 금 융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'이라는 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~2013년 광주·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.1% 증가했다.

이는 국내 전체 금융기관의 증가율 3. 8%를 웃도는 수치다.

대출도 늘어 같은 기간 총여신은 연평균

5.2%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(4.7%)을

기간별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건설 업과 음식·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 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 년부터 빠르게 회복해 2012년과 2013년에 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 이에 따라 총예대율도 2011년 67.0%이던 것이 2013년 70.1%로 상승하 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총예대율 이 턱없이 낮은 수치여서 지역 금융기관들 이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실제 5대 경제권 평균은 2009년 89.6%,

예대율(預貸率)

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과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, 예 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한다.

2011년 91.0%, 2013년 92.3%로 광주·전 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. 광주·전남의 총 예대율이 낮은 것은 예금은행의 경우 2011년 96.7%, 2013년 105.5%를 기록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대율이 44%에 정체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.

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 금융기 관 점포수가 전국 또는 5대 경제권에 상대 적으로 많은 점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.

지역 금융기관의 낮은 예대율과 관련 이상봉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 팀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 화를 강조했다.

예금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도 활

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.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력 외에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강화하고, 환리스크 해결방법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대 한 컨설팅 및 자문기능 강화 등도 아울러

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비 중이 높고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.

한편 지난해말 현재 광주·전남지역 금 융기관의 총수신과 총여신 규모는 각각 89조원과 62조4000억원에 달해 전국의 3. 9%와 4.1%를 차지했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국합농산불통질관리원 전남지원

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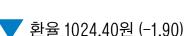
9

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

코스피 2061.97 (+13.16)



코스닥 541.82 (-11.16)



코스피 3년만에 2060선 돌파

2061.97마감 연중 또 최고치

최경환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책에 힘입어 코스피가 2,060선까지 돌파 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 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선 것은 2011년 8월 3일(2,066.26)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. 이에 따라 코스피가 지난 3년 간 굳게 갇혀 왔던 박스권 탈출에 성공 할 것이란 기대감이 점점 부풀고 있다.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.16포인트(0. 64%) 오른 2,061.97에 마감했다.

이날 지수는 5.22포인트(0.25%) 오른 2,054.03로 시작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 반 매수세 속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. 장중 최고 2065.96을 찍기도 했다.

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것과는 달리 코스닥시장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.

외국인과 기관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 목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2%대 나 하락했다.

기아차 쏘렌토 후속모델 렌더링 첫 공개

올 하반기 기아자동차의 흥행을 책임 질 쏘렌토 후속모델의 렌더링 이미지가 29일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.

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쏘렌토 후속 모델은 입체감 있는 전면부와 역동 적인 느낌의 측면부, 당당한 느낌이 강 조된 후면부 등 전 모델보다 한층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가 강조됐다.

기아차 쏘렌토는 2002년 정통 SUV 를 표방해 탄생한 기아차의 대표 준대형 프리미엄 SUV로, 이번에 공개된 쏘렌



토 후속 모델은 2009년 출시한 2세대 모 델 쏘렌토R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이다.

/임동률기자 exian@kwangju.co.kr

김주하 NH농협은행장 광주 방문 현장 소통 강화

김주하 NH농협은행 행장이 광주를 찾아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.

29일 농협광주지역본부는 김주하 행 장이 지난 28일 광주영업본부를 방문해 농협생명·농협손해보험 사무소장과 임·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간담회 를 가졌다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에서 김 행장은 "슬기의

지혜로운 경영과 열기의 조직에 대한 열 정, 온기의 따뜻한 리 더십을 가지고 항 상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가 돼 달라"고 당부했다.

김 행장은 특강을 마친 후 광주평동산 단에 위치한 ㈜대웅에스엔티를 방문해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70年記

大山프리모가발



김주하 행장이 28일 광주평동산단 ㈜대웅에스엔티를 방문, 업체 관계자에게 생산 〈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〉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.

광주·전남 음식점 50개소 원산지 조사 알림판 도입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전남지 원(원장 구돈회)은 이달부터 광주·전남 원 산지표시 우수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 하는 '원산지 조사-뷰(view) 알림판'을 도 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.

알림판에는 원산지 단속 결과 및 단속 공 무원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. 업소 내에 게시 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원산지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.

전남지원은 대상 업소인 우수음식점 50 개소에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을 투입해 분 기별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단속 공무원 실명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

'회생절차' 로케트전기 강남 사옥 법원 경매

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로케트전기 의 강남 사옥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.

법원경매전문회사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로케트전기 사옥이 지난달 경매 신청돼 이르면 올해 말 입찰에 부쳐 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.

이 물건은 채권자인 삼성상호저축은행 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금 31억여원과 36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달 차례로 경매신 청을 했다. 임차인들이 설정한 전세권과 금융기관·보증보험 등에서 설정한 저당 권·가압류 등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.

상반기 호남 주요 SOC사업에 8496억 집행 완료

29일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가 광주시 광산구 한 식당을 찾아 '원산지 조사-뷰(view) 알림판'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.

익산국토청, 전체 사업비 중 61%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

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9일 올해 상반 기 전체 사업비 1조3967억원 가운데 60.8% 인 84%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.

이는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 목표(사업 비 예산의 57.1%를 집행)를 3.7%나 초과 달성한 것이며,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위 축된 호남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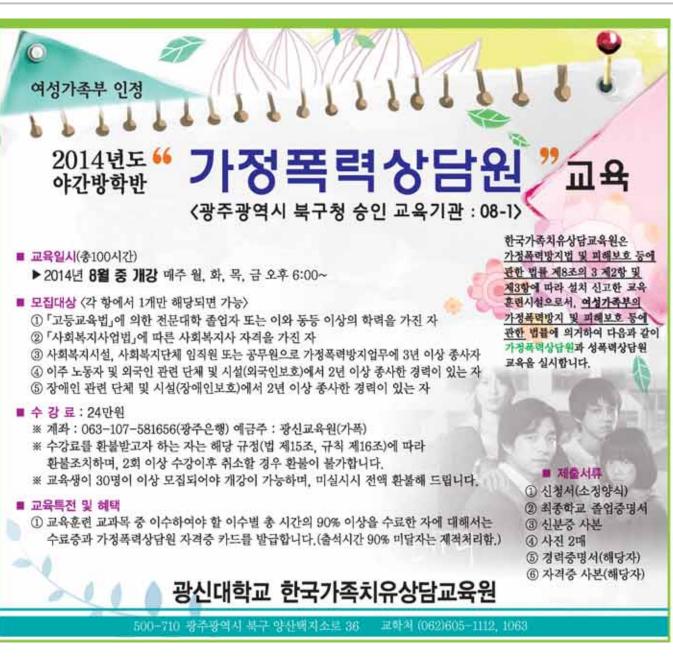
상반기 예산 집행액 중 호남 지역을 근 거지로 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게 상반 기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2020억원으로 집 계됐다.

또 지역 자재 사용액이 1230억원, 지역 장비 사용액이 830억원, 지역 주유소와 식 당 등에 지급된 금액이 400억원 등이다.

익산국토청은 지난 4월 '호남지역 SOC

사업 주요 기관장 간담회 개최'를 통해 수 렴된 지역 발전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와 시설공사 조기 발주 에 힘을 써왔다.

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"하반기에도 효 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 관리로 이·불용 을 최소화 하겠다"며 "전체 예산의 98% 이상을 집행하고, 이를 통해 지역경제 살 리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"고 밝 혔다. /임동률기자 exian@kwangju.co.kr





원장 이 수채 011-607-5330